

국제조달시장의 전자무역 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E-trade in International Procurement Market

이상진(Sang-jin Lee)*

전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전공 조교수

정재승(Jason Chung)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국제조달 정보의 환경 분석과 사이트
구축 |
| II. 국제정부조달협정의 현황 및 분석 | V. 결 론 |
| III. 국제정부조달의 행정체계 분석 | 참고문헌 |

Abstract

It is very necessary to find how to develop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by analyzing functions and roles of information providing circumstance and existing total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information system. In addition, it would require to draw up a way of improving current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information system based on the problems of existing system.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information system and give an idea of mutual cooperating with DGMARKET, a good example of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information system. As a practical method, cooperating with DGMARKET by building each countries' gateway will be very helpful in cost sav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It will also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Korean system's one way service. But supplying only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information is insufficient in realization of e-trade in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To settle these problems, treating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as a same field of trade and giving political support and incentive to company which hopes to participate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are absolutely needed.

Key Words: Procurement Market, Procurement System, e-Trade, e-Marketplace

* 주저자임.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 국제조달시장의 규모는 세계 수출시장의 약 83%인 5조5천5백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국제조달시장은 미국으로 연방정부의 2,500억불, 주정부의 3,000억불, 지방 공공기관의 7,000억불 등 총 1조 달러 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전 세계 30만 이상 수요기관에서 연간 300만건 이상의 공개경쟁입찰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점유율은 2001년에 0.2% 정도로 추정되고, 미국정부조달시장에 0.2%, UN조달시장에 0.0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2000년 기준 세계 12위, 세계수출시장의 2.7%를 감안할 때 극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청은 국제조달시장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제조달시장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만약 수출에 상응하는 국제조달시장의 개척이 이루어질 경우 연간 67조원 규모의 수출효과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¹⁾

우리나라의 국제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1일 10여 건의 단순 국제입찰정보 제공만으로 시장진출 활성화가 어려움이 있고, 초기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국제조달시장의 직접 응찰참여는 소수의 국내 기업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지시장 및 기관정보 부재, 현지 협력네트워크 부재, 국가적 전략 및 지원 부재가 현재까지 나타난 가장 큰 국제조달시장의 직접 진출에 나타난 표면적인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직접 응찰의 실패를 가져오는 시장장벽으로 국제조달시장은 과거부터 법과 제도의 폐쇄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기업에게 우선 구매하는 관행과 주 계약업체와 특수 관계를 인정하는 관행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다수의 우리 기업이 국제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우회 및 간접진출 전략수립이 최상이며, 우리 기업들이 익숙한 기존 무역방법을 이용하여 국제조달시장 초기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주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한데, 특히 현지시장 및 기관정보의 통합 및 분석을 위한 툴의 제공과 현지 협력네트워크의 발굴 및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국가적 전략 및 지원의 제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장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현지 하청, 컨소시엄, 대행방식으로 현지 주계약업체, 현지 에이전트, 현지 교포업체를 통한 진출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제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조달시장 정보제공의 환경 분석과 기 구축된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국제조달시장에

1) 삼성SDS컨소시엄, "국제조달정보시스템 ISP/BPR 프로젝트 보고서", 2003.4, p.4.

대한 관심부족과 정부 및 무역유관기관의 지원미비, 국제조달시장 정보제공의 문제점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재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중인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 국제조달협정의 문헌연구와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실제로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보다는 미래에 사용할 기업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므로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 내용이 효율적인 분석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의 분석

국제조달시장은 국가간에 무역마찰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일반통상 분야까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재와 보복조치가 빈발하였던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조달시장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주요 원인으로 정부조달이 정부기관 및 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조달비용을 납세자인 국민이 지불하는 특성이 잘 반영되어 각국이 공통적으로 시장개방을 꺼려하는 분야로 인식함에 따라 다자무역체제 질서에서조차 무역자유화에 대한 성역으로 인정하여 시장개방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점과 국제조달시장에 대한 정보와 통계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²⁾

국제조달시장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는 주로 무역자유화 측면에서 1970년대 이후 OECD와 GATT를 중심으로 정부조달협정의 제정과 1990년대 들어 OECD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에 관한 협약”을 제정키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 미국과 EU가 주요 국가의 불공정무역사례를 발표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담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거의 정착되지 않은 분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는 대외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WTO GPA의 개정작업 내용과 WTO 신 통상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정부정책 방향설정과 학문의 연구를 위해 매우 유익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부조달협정 발효 이후 각국의 이행 및 잔존하고 있는 보호주의 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특히 개방효과의 분석 등에 대하여는 최근 연구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전자상거래를 통한 공공조달에 관한 연구는 1995년부터 추진된 전자정부구현의 일부분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임에서³⁾의 국방조달에 CALS 도입에 관한 연구와 한국전산원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달EDI와 관련된 연구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에는 공공부문의 부패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전자입찰이 거론되고 있으

2) 신삼철, “WTO정부조달협정체계의 분석과 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8.

3) 임에서, “국방조달관리정보체계 CALS화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4) 한국전산원, “공공부문 EDI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확산방안”, 1999.6.

나, 이는 전자조달을 통한 효율성보다는 부정부패의 방지를 통한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⁵⁾⁶⁾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국제조달시장 정보제공 및 이에 관련된 전자무역 시스템 구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통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II. 국제정부조달협정의 현황 및 분석

1. WTO 정부조달협정(GPA)

1) WTO 국제정부조달협정 논의

국제조달시장이란 각 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WTO 및 FTA 협정에 의해 각 국의 정부조달기관이 타국의 업체조달에 대하여 평등성 및 투명성의 원칙하에 그 시장을 개방한 다자간 혹은 쌍무협정에 의해 이루어진 시장을 말한다. 여기서 정부조달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부문으로부터 물품이나 건설공사 및 설계, 컨설팅 업무 등의 일정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부조달은 그 규모가 일반적으로 각 국 GDP의 10~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주요 기간산업에 필요한 자재의 조달이나 건설의 상당부분이 정부조달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 국 정부는 정부조달을 중소기업 보호⁸⁾ 및 방위산업 육성 등 특정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⁹⁾ 정부조달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한 경제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각 국이 이를 산업정책의 구현수단으로 활용하는 특수한 사정과 가능한 한 개방을 하지 않으려 하는 시장 폐쇄적 제도와 관행 등이 고려되어 그 동안 다자무역체제 질서에서 조차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정부조달을 제외하고는 진정한 무역자유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정부조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1979년 GATT의 동경라운드에서 최초로 GATT 정부조달협정(GATT 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이 복수국간 협정으로 성립되었고, 우루과이 협상결과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규정된 WTO정부조달협정(WTO GPA)이 마련되어 1996년 1월 1일 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정부조달에 대하여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

5) 최근 G2B와 관련하여 전자입찰의 부패방지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G2B에 있어서 부패방지효과는 부수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G2B 자체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자입찰의 부패방지효과에 대한 연구는 남궁근 외(2002), 강병태(2001) 등이 있다.

6) 문광청, “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4, p.8.

7) 日本經濟産業省, 『2003年版 不公正貿易報告書』, 2003, p.434.

8) 일정비율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제도 실시, 입찰시 가격평가에서 중소기업제품 우대적용, 중소기업단체와의 단체적 수의계약제도 운영 등이 그 예가 된다.

9) 신삼철, 전계서, 2003, p.1.

적 통일규범은 WTO GPA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WTO내의 각종 다자간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과는 달리 WTO 협정의 부속협정이 되며, 동 협정에 가입한 28개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복수 국간 무역협정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WTO GPA의 개정추진 방향¹⁰⁾이 다자간 협정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 그밖에도 전자상거래 및 전자조달 문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규범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 분야가 신 통상의제¹¹⁾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따라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과 정부조달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적절한 대책의 제시를 위해서는 현재 WTO에서 진행 중인 WTO GPA협정의 개정추진내용과 문제점의 파악이 우선 필요하며,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 등 신 통상의제와 자유무역협정과와의 관계, 그리고 정부조달에서의 전자상거래 수단의 반영 등 최근의 조달환경변화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WTO GPA 개정추진 논의

WTO GPA 개정추진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7년부터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WTO GPA 가입국들은 여러 제안과 협정의 개정안을 정부조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WTO GPA의 개정방법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WTO GPA 개정에 대한 주요 논의사항은 첫째,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둘째, 조달형태의 재분류 및 요구하는 정보와 조달절차의 간소화 등 규제의 개선, 셋째,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경우의 대응방안, 넷째, 개발도상국 특혜 조항, 다섯째, 수익운영권의 포함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가입국들이 제출한 각종 제안에서는 WTO GPA의 기존 조건들은 유지하면서 협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정 구조의 개선과 영문 개선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1)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WTO 회원국들 간에 가장 논의가 활발한 부분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대한 문제이다. GPA에서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관보, 신문 등 활자매체에 통해 발표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GPA에서는 GPA 부록Ⅱ와 GPA 부록Ⅳ에서 각 가입국의 정부가 정부조달 관련 정보와 법령을 발표하는 매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찰이나 자격심사 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편지, 팩스, 텔렉스 등 활자매체를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GPA가 협상되었던 1990년대 전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아직 크지 않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GPA에 적용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협상국들을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GPA 제24조 8항에서 새로운 정보

10) WTO GPA의 개정 추진방향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조달형태의 재분류 및 조달절차의 간소화,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경우의 대응방안, 개발도상국 특혜조항 개선 및 수익운영권의 포함 여부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11) 이는 UR협상의 미해결 과제와 새로운 통상 이슈들로서 무역과 관련된 경쟁정책, 투자, 환경, 정부조달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이 해당된다.

통신기술을 GPA에 포함시키기 위해 가입국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GPA를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GPA 가입국들의 대부분은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역시 정부조달을 완전 전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GPA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가능성을 제24조 8항에서 암시하였으므로 가입국들은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GPA에 합치한다고 보고 있다.

(2) 조달형태의 재분류 및 조달절차의 간소화

WTO 가입국들은 GPA가 조달주체들에게 요구하는 규제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할 경우 투명성과 시장접근이 감소될 것을 염려하여 적절한 규제완화의 균형을 추진하고 있다.

(3) 공기업의 민영화 대응방안

GPA에서는 공기업이 GPA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고, 정부의 영향력이 제거될 경우 민영화된 공기업을 GPA의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기업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정부의 영향력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4) 개발도상국 특혜 조항

이스라엘과 한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GPA 가입국들은 선진국들이다. 현재 GPA의 가입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들은 개도국이라는 하나 대부분 체제전환 국가들로서 자국 조달체제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GPA에 가입하려는 측면이 있다.

(5) 수익운영권의 포함여부

GATS 서비스 정부조달 협상에서와 같이 수익운영권(concession)을 GPA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 일부 가입국들은 여타 WTO 회원국에서 공기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수익운영권도 역시 GPA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WTO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

세계무역기구(WTO)는 전자상거래를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품의 생산, 광고, 판매 및 유통(the production, advertising, sale and distribution of product via telecommunication networks)이라고 정의하여 전자상거래의 적용범위를 제시하고 있다.¹²⁾

12) 김용재, 「전자상거래 시대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두남, 2001, pp.21-24.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체제로의 전환과 국제기준(Global Standards)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무역 EDI를 이용하면 종이서류와 복잡한 절차로 인한 무역업체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전자무역 진흥정책의 수립 및 정책적 지원과 전자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마련이 전자상거래의 촉진요인이 된다.¹³⁾

2. APEC 정부조달

1) APEC 정부조달협정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태평양을 근접하고 있는 아시아와 미주국가들의 경제협력체로서 총 21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APEC도 정부조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PEC내 정부조달전문가그룹(GPEG: Government Procurement Experts' Group)을 설립하였으며 정부조달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정보는 APEC의 정부조달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어 정부조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APEC에서는 회원국간에 정부조달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APEC에서 주목할 점은 GPA 가입국과 비가입국들이 동시에 APEC의 회원국이므로 APEC은 GPA 가입국들과 비가입국들이 정부조달을 논의할 수 있는 용이한 협의체가 되고 있다.

2) APEC 전자상거래 논의

1997년 11월에 개최된 APEC 정상회의(캐나다)에서부터 전체 APEC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1998년 2월에는 전자상거래 Task Force가 구성되어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 11월 정상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청사진(APEC Blueprint for Action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였다. APEC 전자상거래 청사진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APEC 전자상거래 청사진의 내용

논의 내용	활동 비전
민간·정부의 역할	민간은 기술, 서비스 개발 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법·제도적 환경마련, 신뢰증진, 국제협력, 선도적 역할 등을 담당
시범적인 작업프로그램 추진	사례연구 확대, 전자상거래 측정지표 개발, 금융적 측면의 작업, 경제기술협력 강화, 전자인증 실현 등
가상 전자상거래 멀티미디어 지원체계 개발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개발전략, 인력자원 개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련 정보 교환
종이 없는(paperless) 무역 실현	선진국 2005년까지, 개도국은 2010년까지를 목표로 추진

자료 : 산업자원부,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 방향」, 1999.2, p.25.

13) 산업자원부 외,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2002.2.15, pp.25-28.

3. 우리나라 정부조달

1) 우리나라 정부조달 관련규정

국제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재정경제부)'에서 '관세법(전문개정 2000.12.29 법률 제 6305호)' 제73조 (국제협력관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한편 WTO 양허세율은 'WTO 조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재정부 고시 제98-54호, 1998.12.30)'에 의해 2009년도까지의 양허세율(최저 0%)이 고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품목에 따라서 수입과세율이 부과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의 10%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92조 5항(정부용품 등의 면세)에서는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를 무관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물품과 민간부문에서 전자상거래에 의해 주문되고 물리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배달되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는 전자상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주문되는 물품의 수입통관절차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전자조달 현황

우리나라 전자조달이 추진된 배경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부조달 업무의 효율화 움직임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외물품 조달을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표준화, 국제표준 전자카탈로그의 구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인터넷 국제회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정책은 미국과 2~3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개방적, 국제적 특성으로 볼 때 이러한 격차는 국제적인 입지확보의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세부적인 정책방향이나 기술개발에 있어 선진국의 시행착오나 발전된 기술을 참고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조속한 정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¹⁴⁾

한편,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2001년 상반기부터 'e-비즈니스 분야 WTO 뉴라운드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ASEM 전자상거래 국제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⁵⁾ 이러한 노력은 국내의 정

14)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97년 제기된 FACNET(조달 EDI망)의 통신망(VAN)에 따른 문제점을 참고하여(Bransletter, 1998, pp.6-8 참조), 1996년 이후 EDI망을 기반으로 구축 중이던 조달 EDI시스템을 인터넷 기반으로 구축하였다.

15) 재정경제부 외,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제6차 정보화전략회의 상세자료, 2001.4.27, p.26.

책방향 및 논의동향을 국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Ⅲ. 국제정부조달의 행정체계 분석

1. 정부조달 행정체계의 분석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은 조달행정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개혁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전자상거래(EC)를 활용하여 복잡한 서류중심의 조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의 거래관행을 수용하여 정부조달시장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외국의 국제정부조달제도에서 보이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은 중앙조달의 구매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조달기관 주도로 전환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앙조달기관의 주요업무가 구매업무에 치중하지 않고 조달정책 및 절차수립,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관리, 각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달관련 컨설팅 지원, 물자의 품질, 공급자 및 가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중앙조달기관의 의무적 조달기능이 축소되는 대신 중앙조달기관은 복수물품공급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 ; MAS) 등을 개발하여 중앙조달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이 400여만 품목을, 영국의 상거래국(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OGC)이 50여만 품목을 단가계약 체결하여 각 공공기관의 조달수요에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2. 선진 국가별 정부조달 행정체계

1) 미국

미국은 1998년 전자상거래 전략계획인 'Electronic Commerce for Buyers and Sellers'를 통해 2001년까지 지불, 회계, 성과 보고 등 전자상거래의 모든 과정을 통합하여 정부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를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GSA를 중심으로 주정부 차원에서는 해당 주별로 특성과 거래 유형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로 전자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조달의 목표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모든 거래를 종이 기반에서 전자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따라 주정부의 90%, 연방정부기관의 70%가 3년내 전자조달을 도입할 예정이다.

<표 2> 미국의 주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전자조달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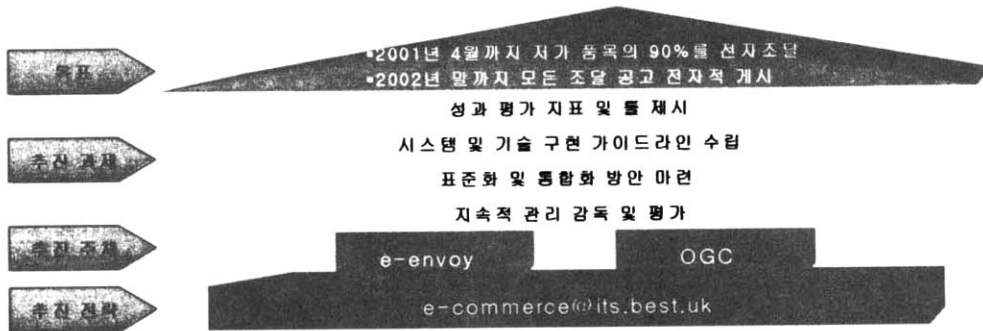
미 공군 (U.S. Air Force)	- 30개 이상의 구매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조달서비스 제공할 계획 - 전자조달시스템에는 역 경매와 같은 다이나믹 가격결정시스템을 포함
미연방조달청 (GSA advantage)	- 1995년부터 온라인 전자조달 카탈로그 운영 - 7만명 이상이 매일 1,000건의 구매주문 - 연간 1억달러 이상의 거래 발생
미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 육,해,공군을 포함한 모든 군수물자의 조달관련업무 및 정보흐름을 통합 - 국방조달 통합포탈사이트인 DoDBusOpp.com를 구축
텍사스 휴스턴 주정부 (Houston/Galveston County, Texas)	- 전자조달을 통해 1,100여개의 지역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 매년 150백만 달러이상의 품목을 조달
로스앤젤레스 주정부 (Los Angeles County)	- 매년 650백만 달러이상을 전자적으로 조달

자료 : 삼성SDS 컨소시엄, "G2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 2002, p.18.

2) 영국

1999년 9월 영국은 2002년까지 영국을 전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 보고서(e-commerce@its.best.uk)를 발표했다.

<그림 1> 영국의 전자정부조달 추진전략



자료 : 삼성SDS 컨소시엄, 전제자료, p.19.

전자조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이해를 조율하고 전략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실행되는지를 감시하는 전자상거래 특사(e-envoy)직을 신설하여 실무 추진부서인 OGC를 발족했다. 이에 2001년 4월 저가 정부조달 품목의 90%를 전자적으로 추진하였고, 2001년에는 공공부문 조달공고의 50%를 전자적으로 게시하였으며 2002년말 모든 조달공고를 전자적으로 게시하였다. 또한 OGC는 전자조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과제로 정부기관의 추진현황 평가, 표준화 및 통합화 전략, 전자상거래 기술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성과평가 지표 및 툴 개발 등을 채택하고 있다.

3) 캐나다

캐나다는 정부 전자조달을 담당하는 PWGSC(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가 주축이 되어 입찰공고에서부터 평가까지 입찰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MERX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MERX 시스템은 Montreal 은행의 자회사인 Cebra Inc.와 정부가 협의하여 구축한 공공부문 온라인 공고서비스 시스템이다. MERX의 주요 기능은 입찰정보 자동 통보, 업체 관심정보 제공, 전자매거진, 과거 낙찰실적 정보 제공, 구매 패턴 분석, 자사의 입찰정보 관리, 발주기관들 관련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정부 부처는 모든 거래에 MERX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PWGSC도 10,000달러 이상 인 쇄, 25,000달러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 50,000달러 이상의 통신서비스의 조달공고에 MERX를 활용하고 있다. MERX에는 하루 평균 200여건의 새로운 정보가 게시되고 평균 사용자수는 50,000여명 이상이며, 연간 8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 MERX의 주요 기능



자료 : 삼성SDS 컨소시엄, 전계자료, p.21.

최근 각국의 정부조달이 전자상거래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중앙조달 대 분산조달의 이분법적 사고는 상당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의 진전에 따른 것으로 종래의 중앙조달제도의 문제점 해소는 물론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달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세계 주요 선진국의 중앙조달기관과 전자조달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주요 국가의 중앙조달기관 및 전자조달 현황

중앙조달기관	미국 GSA	캐나다 PWGSC	영국 OGC
기관장	Administrator(장관급)	Minister(장관급)	Chief Executive(차관급)
직원수	14,000명	12,000명	5,000명
연간예산	\$660억(약86조원)	C\$105억(약10.5조원)	£130억(약23조원)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과 서비스구매 ·국유재산 관리 ·디자인 및 건설프로그램 ·시설관리(설비보안, 공간 변형, 거주자 재배치) ·통신, 항공운임, 정부구매 카드, 운송서비스 ·IT와 컨설팅서비스 ·저장품공급 ·자동차구매 및 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유재산 관리 ·물품, 서비스조달, 국고수납, 지출 ·공무원급여, 연금보험 ·전자정부서비스 ·컨설팅, 회계업무, 번역 ·운영지원업무 ·언론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관리(정부기관) ·IT구매 및 관리지원 ·구매 컨설팅 서비스 ·부동산 및 건설자문 ·공급자관리 및 전자조달 ·조달기법 연구
기관성격	종합행정지원기관 (행자부+조달청)	종합행정지원기관 (행자부+재경부+조달청)	중앙조달정책기관 (행자부+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전자화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rstGov.gov¹⁶⁾ · GSA Advantage!TM¹⁷⁾ · FedBizOpps¹⁸⁾ · FACNET¹⁹⁾ · Buyers.gov²⁰⁾ → Portal, Posting, 쇼핑물, 구매, 계약, 대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C²¹⁾ · e-Purchasing · MERX → Portal, Pos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K Online²²⁾ · OGCBuying.solutions²³⁾ · e-Pilot Project²⁴⁾ · e-tendering pilot scheme → Portal, Posting, 쇼핑물

자료 : 신삼철, 전게서, p.23.

- 16) 종합포털사이트로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단일창구이며, 현재 22,000개의 정부 웹사이트와 3,300만개 이상의 웹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다.
- 17) GSA의 연방보급국(FSS)에서 운영하는 전자쇼핑몰로써 약 200만개 이상의 품목과 서비스가 등재되어 있다.
- 18) 각 기관의 입찰공고 정보를 모아서 제공해 주는 단일 전자게시판을 말한다.
- 19) 민간부문과 연방정부간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범정부적 EDI시스템으로 폐쇄형 통신망이며, FACNET 이용을 위해서는 전산망 사업자(VANs)가 필요하므로 책임소재 불분명 및 비용부담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 20) 공동구매를 통해 IT관련 물품 및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역경매 사이트를 말한다.
- 21) GOC(Government of Canada)는 캐나다의 전자정부시스템을 말한다.
- 22) 영국정부 포털사이트로 900개 이상의 정부기관 웹사이트와 연결되어 모든 공공서비스 및 정부사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까지 모든 국민이 모든 정부기관에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로 되어 있다.
- 23) 정부기관에 광범위한 물품 및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전자거래장터(e-marketplace)이며, 7개의 분야에 걸쳐 단가 약정된 물품 및 서비스 카탈로그를 인터넷으로 검색가능토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4) OGC의 전자상거래팀이 주관하고 있으며, 주문에서 대금지급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고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관계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IV. 국제조달 정보의 환경분석과 사이트 구축

1. 국제조달정보의 환경분석

국제조달시장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하는데, 국제조달 참여주체이며 정보수요자인 중소기업과 국제조달 지원주체이며 정보제공자인 정부와 유관기관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이해당사자에 대한 현황분석과 이해당사자간의 정의 및 연관관계분석을 통해 환경분석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

1) 정보수요자의 현황 및 환경분석

국내 중소기업은 수출시장과 비교해 볼 때, 국제조달시장에 대한 진출이 심히 부진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제조달시장에 관한 중소기업의 관심 부족과 국제조달 및 입찰에 대한 정보부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조달시장의 직접 진출의 성공에 대한 의구심이 많다고도 할 수 있다. 이미 국제조달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국제조달시장 참여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단발적인 진입전략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프로젝트에서 정보수요자들에 대한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첫째,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해외조달시장으로 북미(24%), 극동아시아(20%), 동남아시아(16%), 아프리카(11%) 순으로 나타났다. 북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미국시장이 소수민족 우대정책, 주정부시장 규모, 신뢰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시장에서는 국내업체의 기술과 품질 신뢰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현재 활용하는 수출시장과 선호하는 국제정부조달시장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둘째, 국제조달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국제조달과 입찰 정보획득 및 신빙성에 관한 문제, 현지 인적 네트워크 부족 및 구축의 어려움, 법/제도적 절차의 까다로움, 언어문제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고려하는 주요 장애요인은 국제정부 조달시장 수요정보에 대한 획득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는 국제조달시 핵심정보 또는 입찰에 정통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국제조달시장 진출의 가장 중요한 업무단계로, 정보수집, 마케팅, 계약, 입찰 및 전략적 제휴, 납품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초기시장 진출시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 목표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경쟁력에 적합한 정보, 관련업체 정보 및 업체실적정보, 수요기관별 입찰 예상자료 등이며, 본 정보수집 방법으로 국가 지원기관을 통한 정보입수가 보다 신뢰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업무단계로 마케팅을 선택한 것은 직접적인 조달시장 진입 뿐 아니라 간접적 국제조달시장 진입시에도 마케팅은 기업 성공을 좌우하는 큰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국제조달시장 진출시 정부기관의 요청지원영역으로, 입찰정보 입수, 해외조달 정보 분석, 마케팅, 해외조달 전문인력 및 조직양성, 조달과정 컨설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이 국제조달 진출시 정부지원 중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정보수집 및 해외조달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제공지원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조달 각 업무과정에 대한 밀착 컨설팅과 마케팅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T 인프라의 활용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보유 IT 인프라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대부분 업무상 인터넷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중 4.4 점). 또한 인터넷 활용부분은 정보검색 및 이메일 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부문에 대한 정보수요자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국제조달시장 정보수요자(중소기업)의 현황 및 환경분석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해외조달시장	① 북미(24%), ② 극동아시아(20%), ③ 동남아시아(16%), ④ 아프리카(11%) *북미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미국시장이 소수민족 우대정책, 주정부시장 규모 신뢰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
국제조달시장 진출의 장애요인	① 국제조달 및 입찰 정보획득 및 신빙성에 관한 문제, ② 현지 인적 네트워크 부족 및 구축의 어려움, ③ 법/제도적 절차의 까다로움, ④ 언어문제 *중소기업이 고려하는 주요 장애는 국제정부조달시장 수요정보에 대한 획득 관련사항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문제
국제조달시장 진출의 가장 중요한 업무단계	① 정보수집, ② 마케팅, ③ 계약, ④ 입찰 및 전략적 제휴, ⑤ 납품
국제조달시장 진출시 정부기관의 요청지원영역	① 입찰정보 입수, ② 해외조달 정보 분석, ③ 마케팅, ④ 해외조달 전문인력 및 조직양성, ⑤ 조달과정 컨설팅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T인프라의 활용	보유 IT인프라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업무상 인터넷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

자료 : 삼성SDS컨소시엄, “국제조달 ISP/BPR 용역보고서”, 2003, pp.55-57 재구성.

2) 정보제공자의 현황 및 환경분석

이제까지 국제조달시장 정보제공자의 정부기관은 산발적으로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으로 산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정보제공 서비스는 미흡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내에서도 중소기업의 국제조달 참여를 유발시키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국제조달 진출 지원에 대한 명확한 비전 및 세부 전략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무역유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KOTRA도 동일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국제조달시장 진출시 필요한 성공요소로, 조달/입찰 정보수집에 대한 역량 강화, 국제조달에의 단기적 목표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전문 해외조달 지원기관인 국제조달지원센터(가칭)의 설립,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고려한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조달시장정보 제공에 대한 중진공의 추진전략을 인지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로 중소기업에게 먼저 제공되어야 할 기능은 조달 및 입찰정보 수집/제공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정부조달정보 제공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KOTRA의 해외조달시장의 전략적 지원 대상으로, 미국, 아시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은 현재 5억 5천불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제공되는 정보도 상당히 개방되어 있어 제품경쟁력만 있다면 공략하기 적절한 시장이고, 아시아는 중소기업으로서 경쟁력 및 시장성을 감안해서는 공략하기 쉬우며 주계약자(Prime Contractor)로서도 진출 가능한 시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셋째, KOTRA의 국제조달시장 진출시 필요한 성공요소로, 정보획득 및 신빙성에 대한 문제해결,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마케팅 역량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KOTRA 역시 성공요소가 중소기업에서 정부에 요청하는 지원영역과 일치하고 있다.

<표 5> 국제조달시장 정보제공자의 현황 및 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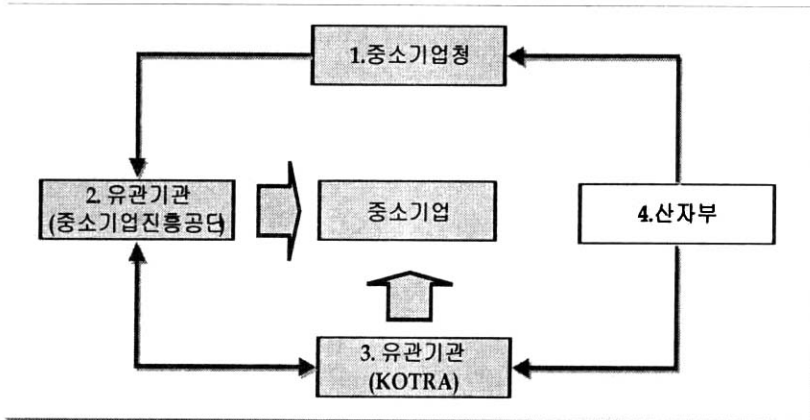
중진공의 국제조달시장 진출시 필요한 성공요소	① 1차 사업에 있어 조달/입찰 정보수집에 대한 역량 강화 ② 국제조달에의 단기적 목표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③ 전문 해외조달 지원기관인 국제조달지원센터(가칭)의 설립이 필요 ④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고려한 통합시스템 구축
KOTRA의 전략적 지원 대상 해외조달시장	① 미국 - 현재 5억5천불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 또한 상당히 개방되어 있어 제품경쟁력만 있다면 공략하기 적절한 시장 ② 아시아 - 중소기업으로서 경쟁력 및 시장성을 감안해서는 공략하기 쉬우며, 주계약자(Prime Contractor)로서도 진출 가능한 시장
KOTRA의 국제조달시장 진출시 필요한 성공요소	① 정보획득 및 신빙성에 대한 문제해결 ②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 ③ 지속적인 마케팅 역량 강화

자료 : 삼성SDS컨소시엄, 전계자료, pp.55-57. 재구성.

국제조달시장 정보제공을 위한 현황 및 환경을 정보수요자인 중소기업과 정보제공자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은 국제조달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소수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에이전트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제공자의 정책기관인 중소기업청은 현재 수출지원센터만 존재할 뿐 국제조

달관련 전담조직이 없고, 무역유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KOTRA 역시 전담조직이 부재하다. 그러나 정보제공자들은 모두 국제정부 조달시장 정보제공의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으며, 중소기업 역시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정보검색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보제공자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의 당위성을 얻고 있다. 따라서 국제조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KOTRA가 중소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조달정보의 제공에 상호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국제조달 지원에 대한 내부이해당사자 정의 및 연관관계 분석



자료 : 삼성SDS컨소시엄, 전제자료, p.79.

2. 국제조달 정보사이트 구축

1) 우리나라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우리나라 정부는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 정보통신부 정보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을 중소기업청으로 운영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는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www.b2g.go.kr)을 구축하였다. 주요 시스템의 구축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조달 포털사이트, 국제조달 정보처리시스템 및 국제조달 업무지원시스템의 구축이다. 이를 구축하기 전에 국제정부조달정보의 주요 수요자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국제조달 업무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반영하였다.(표 6 참조)

〈표 6〉 국제조달업무 프로세스의 문제점 및 시사점

문 제 점	시 사 점
시장조사, 벤더등록, 협력업체 발굴 및 상담, 경쟁 및 협력업체 분석 등 복잡한 조달업무처리 절차 존재함	국제조달 마케팅 관련 서비스 창구단일화를 전문적인 조직 및 시스템으로 구현시 1회 등록으로 시장조사, 벤더 등록 등의 업무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함 (전문성 배가됨)
현지 상사원, 주재원, 에이전트 등 사람에 의한 정보 수집으로 정보의 신속성과 신빙성의 문제가 존재함	자동화된 시스템의 적용으로 인한 다량의 정보수집 및 국제입찰 담당 기관을 통한 정보 획득이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함
일일 10여건에 불과한 대기업 중심의 단순 입찰 공고 유통이 되는 실정임	중소기업에 적합한 국제 조달정보 및 입찰정보 게재, 단순한 입찰공고 뿐 아니라 상세한 내용까지 제공되어야 할 것임
현지 에이전트, 주계약업체(Prime-contractor), 벤더 등 입찰별 Sub-contracting, 컨소시엄 대상 업체 발굴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에이전트 및 주계약 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존재함	방대한 조달기관별 기존 조달내역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입찰공고와 연계 분석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에 의해 검증된 에이전트 및 주계약 업체와의 제휴가 필요함
현지 법/제도적 여건 및 서류작성/계약조건 협상에 어려움 존재하여 현지 에이전트에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상황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대행을 에이전트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기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제조달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자료 : 삼성SDS컨소시엄, 전계자료, p.58.

2)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내용

(1) 국제조달정보 제공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내의 국제조달정보 제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최신 정보기술을 통해 전 세계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입찰정보를 실시간 통합하여 제공한다. 둘째, 입찰정보, 낙찰정보, 발주계획정보 등 입찰단계별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현지 조달업체(벤더), 에이전트, 교포조달업체, 주 계약업체의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미국 및 국제기구 등 핵심 전략시장에 대한 기관별 조달내역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한다. 다섯째, 조달기관별, 수요기관별, 품목별, 주 계약업체별로 기존 구매 및 납품 내역을 분석하여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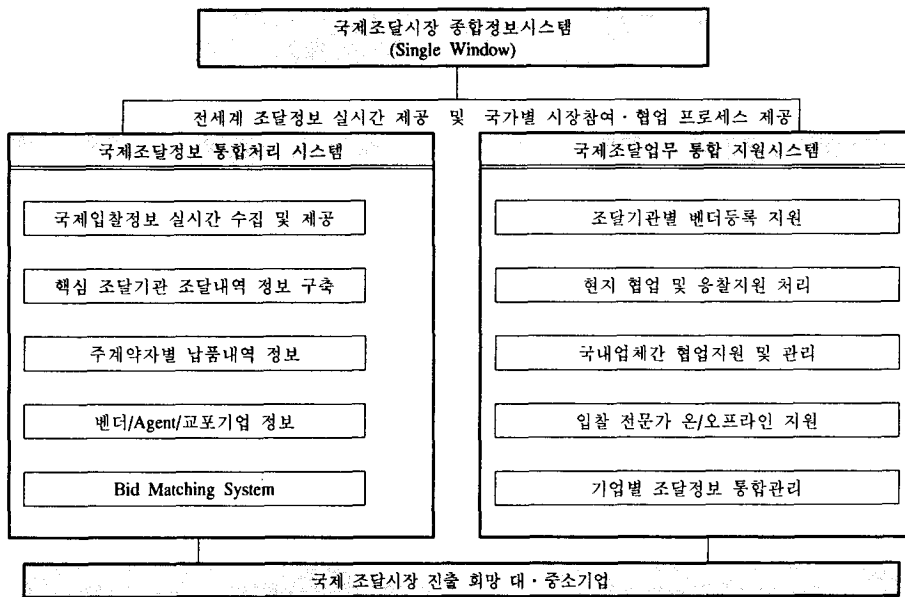
(2) 국제조달업무 지원

국제조달업무 지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요 조달기관, 공공 마켓플레이스, 벤더 및 하청업체별 웹 디렉토리 등 기관별 벤더를 자동 등록할 수 있다. 둘째, 입찰 및 협업을 지원한다. 셋째, 조달기관에서 배포하는 입찰서식, 등록서식 등 조달문서를 통합 제공한다. 넷째, 하청 및 컨소시엄의 협업을 위한 현지업체 발굴 및 상담을 지원한다. 다섯째, 국내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제를 지원한다. 여섯째, 입찰별 발주기관의 문의 및 요청사항을 템플릿으로 제공 및 자동 발송을 지원한다.

(3) 국제조달 포털사이트 제공

국제조달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일반적인 업무 안내를 제공한다. 둘째, 전 세계 조달정보 및 현지 업체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제조달시장의 법, 제도, 현황, 진출전략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업종별 커뮤니티의 공간을 제공한다.

<그림 4>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구성도



자료 : 삼성SDS컨소시엄, 전계자료, p.85.

3)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

우리나라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은 전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인 DGMARKET²⁵⁾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DGMARKET의 설립배경 및 주요기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과의 비교분석한 후 상호 협력 또는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DGMARKET의 설립배경 및 주요 기능

DGMARKET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 및 1개 기관²⁶⁾이 설립에 참여하고, 6개 기관²⁷⁾이 협력하

25) DGMarket은 워싱턴 D.C의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중인 국제조달 마켓플레이스로, 기존 World Bank에서 통합 관리하는 국제기구, 개발은행, UN조달 및 프로젝트 정보를 기반으로 전 세계 공공조달시장 마켓플레이스로 확대 구축된 포털사이트(www.dgmarket.com)이다.

여 2000년 4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였다. 당시 100여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10여개 국가의 게이트웨이를 완성하여 한국어를 제외한 번역방안을 수립하였다. 그 후 정보제공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30여개 국가 게이트웨이로 확대하였다. 최근 2003년 6월에는 50여개 국가 게이트웨이로 확산시켰으며, 공공조달기관 전자조달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기능을 구축하였다. 주요 기능으로 국제조달시장정보의 제공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포탈사이트로서 월드뱅크 산하 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입찰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국제기구의 자금지원내용을 국가별, 산업별 정보데이터로 제공한다. 또한 현재 유럽연합 입찰정보를 하루 약 500여건의 입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간 2,100억불의 입찰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별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는 DGMARKET 포탈사이트의 국가별 현지화 및 파트너 서비스로서 구조와 기능면에서 포탈사이트와 유사하나 국가별 사용자(현지화 서비스)들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서 상호 정보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2) DGMARKET과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과의 비교

DGMARKET과 최근 구축한 우리나라의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을 콘텐츠 구현측면에서 비교하면, DGMARKET의 가장 큰 단점은 세계 최대 조달시장인 미국의 참여가 불분명하고 미국정부의 조달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면 가장 큰 장점은 월드뱅크와 UN이 운영중인 DEVBUSINESS (www.devbusiness.com)를 기반으로 국제기구 및 개발은행의 국제조달정보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구축한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의 경우, 지역적 범위와 정보의 양적 측면에서 DGMARKET에서 보다 풍부한 국제조달시장 정보를 제공하나, 국내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협업지원이 어려운 단방향 서비스라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전 세계 국가별 게이트웨이 확산으로 DGMARKET의 조달 콘텐츠가 더욱 풍부해지고, 국가별 참여업체간 협업서비스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의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과 DGMARKET과의 상호협력은 우리 기업의 수익기회 확대 및 국익차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표 7〉 DGMARKET과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과의 조달정보 콘텐츠 비교

조달정보 콘텐츠	DGMARET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
국제기구, 개발은행 입찰/낙찰정보	○	○
국제기구, 개발은행 프로젝트 문서	○	x
전세계 국가별 입찰/낙찰정보	정부입찰정보만 현재 제공(미국제외)	북미, EU,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100여 국가 제공
시장 참여업체 정보	국가별 참여업체, 개발은행 컨설턴트 업체정보	국가별 벤더, 에이전트 주 계약업체 정보

자료: DGMARKET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

26) 한국, 호주, 중국, 독일, 인도, 이태리, 일본, 말리, 파키스탄, 르완다, 월드뱅크

27) Michael Bloomberg, Luxembourg, Mac Holdings America, Inc., Mphasis, Transnational Computer Technology Inc., UNDP

(3) DGMARKET과의 협력방안

이미 구축된 우리나라의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과 DGMARKET과의 연계 또는 협력방안으로 현지 DGMARKET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가별 게이트웨이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별 게이트웨이로 참여할 경우 구축비용을 DGF(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동시에 국내기업에게 현재 제공치 못했던 양질의 국제기구 및 개발은행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국가별 조달시장 참여업체간 양방향 협업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현재 구축된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의 단방향 지원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국내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제적인 논의동향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은 국제입찰에 대한 호환성과 국내기업의 국제입찰 기회의 제공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조달청의 전자조달에 사용되는 정부물품 분류기준이 국제표준 전자카탈로그와 호환성이 결여되어 있고 현행 전자입찰의 범위가 국내입찰 범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입찰이 어렵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개발범위가 일부 업무 및 프로세스에 한정되어 전자조달의 확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 분석으로 국제조달시장 정보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제조달시장 입찰정보의 입수와 국제조달시장 정보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수출과 국제조달시장에 대한 관심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수출 선호시장인 북미와 극동아시아가 조달참여 선호국가로 나타나 국제조달시장과 수출 선호시장은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제조달시장 진입에 대한 정부 및 무역유관기관의 지원현황에 관하여 국제조달시장의 진출에 필요한 성공요소로 조달정보수집에 대한 역량 강화,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동을 고려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들고 있다. 또한 전자무역 구현의 온라인 시스템 외에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오프라인 마케팅 강화도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서비스 중인 우리나라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www.b2g.go.kr)의 현황을 분석하고, 선진사례인 국제조달 마켓플레이스인 DGMARKET과 비교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별 게이트웨이 구축방식으로 협력할 경우 비용과 정보제공 면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우리나라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이 안고 있는 단방향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국제입찰정보의 제공이 국제조달시장에서의 전자무역 구현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무역과 국제조달을 동일한 영역으로 취급하고, 국제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지원과 조달정

보시스템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개발 등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조달사례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실증사례분석을 통하여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 「조달청; 전자조달, 이제 문서도 방문도 필요 없습니다.」, 제3회 공공부문혁신대회수상사례, 2001.6.
- 김용재, 「전자상거래 시대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두남, 2001.
- 남궁근 외,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 이론과 사례」, 도서출판 한울, 2002.
- 문광철, “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방안”,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산업자원부,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 방향”, 1999.2.
- _____외,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2000.2.15.
- 삼성SDS컨소시엄, “국제조달정보시스템 ISP/BPR 프로젝트 보고서”, 2003.4.
- _____외, “G2B 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 2002.
- 신삼철, “WTO정부조달협정체계의 분석과 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임예서, “국방조달관리정보체계 CALS화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안중호·박철우,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홍문사, 2001.
- 이상진 외 3인, 「21세기 뉴페러다임 전자무역」, 두남, 2003.3.
- 양준석·김홍률,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WTO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재정경제부 외,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 제6차 정보화전략회의 상세자료, 2001.4.
- 조달청, 「정부조달제도와 환경변화에 따른 조달행정 발전방향」, 2003.
- 한국전산원, 「공공부문 EDI 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확산방안」, 1999.6.
- 日本經濟産業省, 「2003年版 不公正貿易報告書」, 2003.
- <http://www.b2g.go.kr>
- <http://www.g2b.go.kr>
- <http://www.pps.go.kr>
- <http://www.dgmarket.com>
- <http://www.devbusiness.com>